

자원딜레머 상황에서 인상 관리 동기가 수확 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심리적 접근

남 기 덕

육군사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인상을 좋게 보이려는 욕구, 즉 인상관리 동기가 자원딜레머 상황에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원 수확량을 자제하게 만들 것인가 여부를 실험실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가설은 사회행동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에서 나온 연구 결과와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도출되었다. 집단 구성(내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 외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과 피드백 익명성(각 개인의 수확량을 공개적으로 피드백 제공, 각 개인의 수확량을 익명으로 제공)이라는 두 요인이 실험설계에 포함되었다. 피험자는 사관학교 학생들이었는데, 24개의 4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주요 종속 변인은 개인당 평균 수확량이었다. 실험 결과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외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피드백이 익명적으로 제공될 때 수확량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인상관리 효과가 외집단원 조건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이 결과는 문화심리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사회딜레머(social dilemma)란 한 집단내에서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개인적(individual)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이 집단적(collective)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이 안되는 상황을 말한다.

사회딜레머의 한 예로서 고래 남획을 들 수 있다. 고래잡이 선원들은 바다에서 그들의 능력이 닿는 만큼의 고래를 잡을 수 있다. 고래는 계속 번식하기 때문에 고래의 수는 감소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고래잡이 선원들이 목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번식을 이상으로 남획을 하면 고래는 멸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고래잡이 선원은 모두가 더 이상 고

래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이 고래잡이 예는 사회딜레머 유형 중에서 자원딜레머(resource dilemma)로 불리는 것이다.

다른 유형의 주요한 사회딜레머로서는 자발적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재화(public goods)를 들 수 있다. 이 공공재화는 일정량의 기부금이 계속 담지해야 유지 및 운영될 수 있다. 공공재화가 유지 및 운영되고 있는 한 한 푼의 기부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그 공공재화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기부금을 내지 않고 남이 낸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재화를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무임승차의 유혹에 빠진

다면 그 공공재화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그 공공재화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공공재화의 예로서는 미국의 PBS 교육방송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딜레마 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요약된다. (1) 집단내의 각 개인은 협동적 선택지와 (C-선택) 경쟁적 선택지(D-선택)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위의 예들에서 협동적 선택지란 고래를 적게 잡는 행동이나 공공재화를 위한 기부금을 내는 행동이고, 경쟁적 선택지란 고래를 많이 잡거나 공공재화를 위한 기부금을 내지 않는 행동을 말한다. (2)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택하든지 무관하게 D를 택하는 것이 C를 택하는 것보다 이득이 더 크다. (3) 그러나 모두가 D를 택했을 때의 구성원들의 이득의 총량은 모두가 C를 택했을 때보다 더 작다 (Komorita & Lapworth, 1983).

자원딜레마

본 연구는 자원딜레마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원딜레마에 관해서 좀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자원딜레마 상황에는 사회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의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사회적 측면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그 자신만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각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이득 또는 결과가 구성원들간에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시간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재보충이 이루어지는 공동자원을 장시간 공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각 개인은 목전의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만약 모두가 이런 유혹에 빠져서 자원을 다투어 남획(濫獲)한다면 자원은 금방 고갈되어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원의 부존량이 변하므로 딜레마의 성질은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딜레마의 성격이 시시각각 달라진다는 점이 자원딜레마가 다른 유형의 사회딜레마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다. 실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원딜레마의 예는 가뭄시의 물사용, 천연 자원 고갈, 에너지 남용, 환경 오염, 산성비로 인한 삼림의 황폐화, 오존층의 파괴 등의 문제들이다.

사회딜레마에 관한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구성원들의 협동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는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자원딜레마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Levine & Moreland, 1990의 개관논문 참조), 이런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변인들은 다른 구성원들의 수확량과 그 수확량의 차이에 관한 (조작된) 피드백 정보(Messick, Wilke, Brewer, Kramer, Zemke, & Lui, 1983; Samuelson, Messick, Rutte, & Wilke, 1984; Samuelson & Messick, 1986a; Samuelson & Messick, 1986b), 정적 또는 부정적 조망틀(framing)(Brewer & Kramer, 1986; Rutte, Wilke, & Messick, 1987a), 집단 크기와 집단 정체성(Brewer & Kramer, 1986; 변상원 & 한덕웅, 1998) 등이다.

문화적 요인의 영향

최근 사회심리학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는 문화적 요인이 사회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자원딜레마 상황에서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적다. 본 연구는 동서양 피험자간의 행동을 직접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딜레마에서 사람들의 수확 행동을 문화적 요인에 입각하여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사회 행동에 관한 비교 문화적 심리학 이론들이 상당수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는 H. C. Triandis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집단주의-개인주의(collectivism-individualism) 이론이다. 본 연구의 연구 주제도 집단주의-개인주의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에 기초하여 나온 것이다.

내집단-외집단 구분

Triandis는 일련의 비교문화적 연구들(Triandis, 1989;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Lucca, 1988)에서

집단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회 행동의 특징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다.

Triandis에 의하면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상호작용의 대상이 내집단(in-group)의 사람인가 아니면 외집단(out-group)의 사람인가에 따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외집단의 어디에 속하든 크게 구분하지 않고 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내집단 구성원들간에는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감정적인 조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외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고, 북유럽, 북미주 및 호주 지역의 국가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된다.

사회딜레마에서의 문화적 요인의 효과에 대한 관심은 이 문화적 요인이 사람들의 협동 또는 경쟁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의 구성을 동일 소속 집단원으로 구성한 조건(내집단원 조건)과 상이한 소속 집단원으로 구성한 조건(외집단원 조건)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인상 관리 효과

자원딜레마 상황에서 집단 구성원의 수확 행동에 대한 피드백 정보는 개개인의 수확량을 공개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집단 전체의 수확량을 평균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각 구성원의 행동의 익명성(또는 식별가능성)과 관련이 된다. 즉, 각개인의 수확량을 공개하는 것보다 집단전체의 수확량만 공개하는 것이 익명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익명성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감소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Zimbardo, 1970; Diener, Fraser, Beaman & Kelem, 1976; Diener, 1977).

사회딜레마 상황에서의 익명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N-인 죄수의 딜레마 패러다임(Bixenstein, Levitt & Wilson, 1966; Fox & Guyer, 1966)과 공공재화 패러다임(Sniezek, May, & Sawyer, 1990)에서는

피험자들이 의사결정을 익명적으로 하기 보다는 공개적으로 할 때 더 협동적이 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의 정체가 타인에게 많이 노출될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익명성에 작용하는 보다 구체적인 동기적 기제는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자신의 인상을 좋게 보이려는 경향, 즉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 효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Goffman, 1959).

인상관리 효과 가설이 타당하다면 인상관리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이 익명성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인상관리 효과와 관련되는 한 가지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문화이다. Triandis의 개인주의-집합주의 이론 중에서 인상관리 효과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자아 개념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아 개념은 개인적 자아, 집단적 자아, 공중적 자아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적 자아란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성격, 가치관, 태도, 신념 또는 행동 특징에 관한 자아상을 말하고, 공중적 자아나 집단적 자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아상이다. Triandis(1989)에 의하면 집단주의적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사람들에 비해 개인적 자아(private self) 보다는 공중적 자아(public self)나 집단적 자아(collective self)가 더 잘 발달해 있고, 이런 자아상을 중요시 여기는 정도도 더 강하다고 한다.

집단주의적 사람들에게서 공중적 자아나 집단적 자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이 인상관리 효과가 사회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또다른 근거는 귀인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에서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합치성 정보(consensus information)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Cha & Nam, 1985)을 거론할 수 있다. 즉, 귀인과정에서 집단주의적 문화권의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문화권의 사람들에 비해 남의 의견이나 행동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타인의 존재가 갖는 의미, 즉 영향력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강할 것이라는 점을 시

사한다.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며, '체면'을 많이 차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귀인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딜레마 상황에도 적용해 본다면 인상관리 효과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자원딜레마 상황에서는 공동 자원으로부터 자원을 수확하게 된다. 자원을 너무 많이 수확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기 잇속을 너무 많이 챙긴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 반면, 적게 수확하면 '공동의 선'을 위한다는 칭찬을 받게 된다. 자원딜레마 상황에서는 적게 수확하는 것이 인상을 관리하는 행동이 된다. 인상관리 행동은 어떤 문화권의 사람에게서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딜레마에 관해서 미국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남기덕, 1995)에서는 익명성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국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딜레마 연구에서 익명성의 효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한 가지 설명으로서 미국인들은 자원딜레마 상황에서 자원을 수확하는 것을 인상관리 문제와 별로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인상관리의 문제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문제를 더 크게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상대방이 내집단원인가 외집단원인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적기 때문에 내외집단에 따라서 익명성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익명성의 효과,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상관리 효과가 상호작용 대상이 내집단 사람인가 아니면 외집단 사람인가에 따라 달리 나올 것이라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설정하는 배경은 한국 사람들이 공중적 자이나 집단적 자이를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상호작용의 대상이 내외 집단의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동을 다르게 하므로,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인상관리에 더 신경을 쓸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면'에 관한 최상진과 유승엽(1992)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최상진과 유승엽(1992)의 '체면'에 관한 연구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체면차리는 행동의 실례와 체면을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조사를 한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남의 이복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체면을 허식이라고 여겨서 실속을 차리는 것' 등을 체면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주요 행동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최상진과 유승엽, 1992, p. 146). 체면에 관한 이러한 행동적 정의에 의하면 자원딜레마 상황에서는 수확을 많이 하는 것이 체면을 차리지 않는 행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체면을 많이 차려야 할 대상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별로 친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체면을 많이 차려야 할 관계는 '학부모와 선생님, 목사와 신도, 교수와 학생, 사돈, 초면인 경우' 등이고,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괜찮을 관계는 '친한 친구, 선후배, 부부, 부모형제, 연인' 등이다(최상진과 유승엽, 1992, p. 148). 이런 결과는 내집단 사람들보다는 외집단 사람들에 대하여 인상 관리에 더 신경을 쓴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 가설 및 예측

사회 행동에 관한 집단주의-개인주의 연구들에서 발견된 사실들에 기초해 본다면 자원딜레마 상황에서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외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수확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집단주의적 사람들은 내집단 구성원들간에는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감정적인 조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외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쟁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확량에 대한 피드백이 집단의 평균 수확량으로 제공될 것인가 아니면 개별 구성원의 수확량으로 제공될 것인가에 따라서 외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는 수확행동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과 최상진과 유승엽(1992)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예상을 해보면 한국인에게서는 외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인상관리의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상관리의 동기는 각 개인의 수확량을 공개적으로 피드백해

줄 때 높을 것이다. 그러나 이 피드백을 익명적으로 줄 때는 인상관리의 동기는 줄어들고 대신 이기적 동기나 경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집단 구성에서의 내-외집단 요인과 피드백의 익명성 요인간에 상호작용이 예상된다.

연구 방법

피험자

사관학교의 생도 96명이 심리학 개론 수강의 한 요건인 실험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피험자로서 실험에 참가하였다. 피험자들은 모두 남성으로서 실험 조건에 우선할당되었다. 4인의 집단이 구성되어서 실험에는 24개의 집단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는 사관학교의 3학년 생도들이었다. 사관생도들은 군조직의 계대(梯隊) 중에서 중대(中隊)를 중심으로 대부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숙식, 운동, 여가 활용, 여행 및 각종 단체활동을 중대단위로 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중대에 소속한 생도들끼리는 내집단원 의식이 강하다. 피험자들은 3학년초에 현재 소속된 중대로 편성되었는데, 이 중대 소속은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피험자들이 실험에 참가한 시기는 현재의 중대로 편성이 된 후 3-4개월이 경과한 시기이었다. 중대 편성이 있는 후 함께 생활한 기간이 3-4개월이나 지났고, 또 1, 2학년 때 대부분이 어느 정도 안면을 서로 익힌 상태인데다,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의 거의 2년간을 같은 중대원으로서 생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더구나 졸업 후에도 영원히 같은 중대 출신으로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같은 중대 소속의 생도들끼리는 강한 내집단원 의식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전의 많은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실험실 상황에서 피험자들이 수일 또는 수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함께 실험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는 식의 '미래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경우에서조차도 피험자들의 행동이 이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생활 속에서의 집단 소속을 활용

하여 변인의 수준을 조작하였으므로 집단구성이라는 변인의 효과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집단원 조건의 피험자들은 모두 다른 중대 소속 생도들로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들끼리도 사관학교 생활을 함께 하는 동안 여러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중대 소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집단원 조건에 비해서 상대방에 대해 인상관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 절차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앞의 벽면을 향하여 일렬 횡으로 배치되어 있는 4개의 책걸상에 한 사람씩 앉는다. 책걸상 위에는 연필 외에는 아무 것도 놓여있지 않았다. 이 책걸상들은 서로 약 80cm 가량 떨어져있었는데, 높이 1.5m, 폭 1m의 천으로 된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어서 피험자들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대화는 금지되었다.

4명이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4명이 모두 같은 중대 소속의 생도들로 구성되거나, 4명이 모두 서로 다른 중대 소속의 생도들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피험자가 자리에 모두 앉으면 각 피험자에게 하나씩 소속 중대를 물어본 후, 구성원들의 중대 소속에 관해 여러 번 언급함으로써 구성원이 전원 내집단원 또는 외집단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에게 실험 과제를 하는 절차가 적혀있는 인쇄된 지시문을 나누어 주고 각자 조용히 읽도록 하였다. 지시문에서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각 피험자는 다른 세 명의 피험자들과 상호작용하게 될 것인데, 집단은 한정된 크기의 공동자원에서 자원을 수확하는 것에 관한 과제를 받을 것이며, 이 과제를 하는데 있어서 집단 구성원들간에는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얘기 해주었다. 또한 피험자들에게 두 가지 목표를 강조하였는데, 하나는 각 피험자가 가능한 한 최대한 자원을 수확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을 가능한한 오래 보존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자원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지시문에 이어서 실험과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시가 주어졌다. 첫째, 자원의 최초 크기는 600점이다. 둘째, 각 구성원은 매시행마다 0점에서 20점 사이에서 원하는 점수만큼 수확할 수 있다. 셋째, 매시행에서 구성원들의 수확이 끝나면 자원은 잔여량의 10%가 보충되어 다음 시행의 자원이 되는데, 자원의 최대 크기는 최초 크기인 60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네째, 자원의 크기, 집단 구성원들이 수확한 총점수, 개인당 평균 수확량 등에 관한 피드백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투명지에다 실험자가 써서 투사기(OHP)로 피험자들의 전면에서 있는 흰 벽면에 비춰준다¹⁾.

구성원들의 수확량, 부존지에 남아있는 자원량 등에 관한 피드백을 매시행 후에 피험자들에게 주었다. 자원이 200점 미만으로 내려가면 처벌이 부과된다는 점을 주지하도록 하였는데, 집단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각 피험자는 자신이 수확한 총량의 1/6을 몰수당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²⁾

자원의 크기와 구성원들의 수확량에 관한 피드백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투사기로 화면에 비춰주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공개 피드백 조건에서는 집단의 총수확량은 물론 각 개별 구성원의 수확량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각 구성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대신 좌석 번호를 사용하였다. 어느 좌석에 누가 앉아 있는지는 피험자들끼리 서로 알 수 없었다. 익명 피드백 조건에서는 집단의 전체 수확량 및 집단의 평균 수확량만 알려주었다.

피험자들을 실험과제에 몰입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1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행운상으로 내걸었다. 각 피험자에게는 매10점을 올릴 때마다 복권이 한 장씩 주어지는데, 실험이 모두 끝나면 6장의 복권을 추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각각 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³⁾. 점수를 많이 올릴수록 복권의

매수가 많아지므로 행운상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피험자들은 매시행후에 자신이 수확한 점수와 累加 총점수를 기록용지에 기록하였다.

피험자들을 과제에 숙달시키기 위하여 이제까지 그들이 읽고 들은 지시문에 관하여 간단한 시험을 보게 하였고, 틀린 사람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주었다. 그런 다음 4회에 걸쳐 연습시행을 하였다. 연습시행에서는 최초의 자원 크기를 800점으로 하였고(실제 시행에서는 600점), 다른 면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 시행에서와 같게 하였다.

연습시행이 끝나면 피험자들은 12회의 실제시행을 하게 되는데, 피험자들은 그들이 하게 될 총시행의 수가 몇 회인지는 알 수 없었다. 계획된 12시행이 끝나거나, 자원의 크기가 200점 미만으로 내려가서 집단이 처벌을 받게되면 피험자들에게 실험이 끝났다고 말해주고, 실험후 질문지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든 실험이 끝나면 피험자들에게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주고, 감사의 말을 하고 돌려 보내었다.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두개의 변인을 조변한 2×2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두 변인은 집단 구성(내집단원, 외집단원)과 피드백의 익명성(공개, 익명)이었다. 집단 구성과 피드백의 익명성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요인설계를 하였다.

주요 종속변인은 피험자들의 수확행동이었는데, 이것은 개인당 매시행 평균수확량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분석시는 집단을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였다. 종속 측정치는 결과 제시 및 해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4인 집단의 12회 총 수확량을 매시행당 일인의 수확량으로 변환하였다.⁴⁾ 이 종속 측정치에 대하여 2×2(집단 구성×피드백의 익명성) ANOVA를 하였다.

- 2) 자원이 처벌선 이하로 내려가서 처벌을 받은 집단은 없었다.
- 3) 이 행운상은 약속대로 실험이 끝난 후 복권을 추첨하여 당첨된 6사람에게 각각 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였다.
- 4) 시행간 수확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12회 수확량의 평균을 종속측정치로 하였다.

1) 피드백은 피험자의 실제 수확량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 실험에서는 기만 절차(deception procedure)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수확행동

평균수확량에 대한 2×2(집단구성×피드백의 익명성) ANOVA 결과 집단 구성과 피드백의 익명성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35$, $df=1, 20$, $p<.05$).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집단원 조건과 외집단원 조건에서 피드백의 익명성 여부에 따라 수확량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표 1. 집단구성과 피드백 익명성의 각 조건에서의 개인당 매회 평균수확량^{ab}

내집단원 집단		외집단원 집단	
공개FB	익명FB	공개FB	익명FB
14.8 (.61)	14.2 (1.35)	14.1 (.61)	15.3 (1.11)

a 매회 각 개인의 최대수확가능량은 20점이었다. 괄호 속의 수치는 표준편차

b 각 실험 조건별 N = 6

외집단원 조건에서는 예상대로 각 개인의 수확량이 공개되었을 때($M=14.1$)가 익명적으로 제공되었을 때($M=15.3$)에 비해 수확량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 결과는 가설에서 예측했던 바대로 각 개인의 수확량이 공개되었을 때 인상관리 효과가 작용하여 많이 수확하는 것을 자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내집단원 조건에서는 각 개인의 수확량이 공개되지 않을 때($M=14.2$)에 비해 공개가 되었을 때($M=14.8$) 수확량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 가설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다. 연구 가설에서는 내집단원 조건에서 피드백이 익명적일 때 수확량이 더 많아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피드백이 비익명적일 때 오히려 수확량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지 못하였다.5)

5)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는 어느 쌍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2×2 ANOVA에서 이러한 결과는 이 상호작용이 완전히 교차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본문에서와 같이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확행동의 동기적 요인

피험자의 수확행동의 동기적 기초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후 질문지의 항목들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질문항목은 자신의 수확량을 극대화하려는 욕구, 타구성원들의 탐욕성의 정도에 대한 지각, 타구성원에 비해 수확량의 비교우위를 달성하려는 욕구, 처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염려, 자신의 수확량 결정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관한 염려 등이었는데, 피험자들은 이 질문들에 대하여 7점 척도상에서 응답을 하였다. 이 7가지 항목들을 예측변인(predictor)으로 하고, 개인당 매회 평균 수확량을 예측되는 변인(predicted)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利己性(자신의 수확량을 극대화 하려는 욕구), 破局 염려(처벌선에 봉착하게 될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경쟁심(타구성원보다 더 많은 양을 수확하겠다는 욕구)이 수확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R=.73$, $F(4, 251)=72.31$, $p<.001$). 표 2에 이 예측변인들의 각각에 대한 회귀계수와 관련된 통계치들이 나와 있다.

표 2. 수확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회귀계수^a

변인	b	β	t	p	R^2 change ^b
이기성 ^c	.86	.45	4.77	.000	.43
파국염려 ^d	-.41	-.28	-4.05	.000	.09
경쟁심 ^e	.33	.32	3.37	.001	.05

a. 통계치는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나온 결과이며 분석단위는 개인이었다.

b. 회귀분석에서 각 예측 변인의 고유 설명 변량.

c. 자신의 수확량 극대화 욕구.

d. 처벌선에 봉착하게 될 것에 대한 염려 정도.

e. 타구성원보다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해야겠다는 욕구

위 결과를 보면 '利己性' 변인의 고유 설명 변량이 다른 변인들의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기성(자신의 이익의 극대화)이라는 것이 사회딜레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적 변인임을 밝힌 이전의 연구 결과들(Komorita, Sweeney & Kravitz, 1980; Simons, Dawes & Orbell, 1983; Rapoport & Eshed-Levy, 1989, 남기덕, 1995)과 일치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자원딜레마 상황에서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에 입각한 인상관리 효과 가설이 지지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즉 외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각 개인의 수확량이 공개적으로 제공될 때에 비해 익명적으로 제공될 때 수확량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외집단원들 앞에서는 자신의 인상을 좋게 보이려는 동기, 즉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적게 보이려는 동기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 욕구나 외집단원에 대한 경쟁 동기보다 더 우세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각 개인의 수확량이 익명적으로 제공될 때는 자신의 수확량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인상관리 동기는 사라지고 이기적 욕구나 경쟁 동기가 우세해져서 수확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외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피드백이 익명적으로 제공될 때 이기적 욕구 또는 경쟁 동기가 우세해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기 위해 각 실험 조건별로 실험후 질문지의 항목들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앞서 결과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자신

의 수확량을 극대화하려는 욕구, 타구성원들의 탐욕성의 정도에 대한 지각, 타구성원에 비해 수확량의 비교 우위를 달성하려는 욕구, 처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염려, 자신의 수확량 결정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관한 염려 등의 7가지 항목들을 예측변인(predictor)으로 하고, 개인당 매회 평균 수확량을 예측되는 변인(predicted)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3에 나와 있다.

표 3을 보면 외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피드백이 공개적으로 제공되었을 때는 경쟁심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익명으로 제공되었을 때는 경쟁심이 수확 행동에 대한 주요 예측변인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결과는 외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피드백이 익명적으로 제공되면 외집단원에 대한 경쟁 욕구가 촉발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일단의 지지 증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의 연구 가설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 내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각 개인의 수확량에 대한 피드백이 익명적으로 제공되었을 때에 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었을 때 수확량이 더 컸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

표 3. 각 실험 조건별 수확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회귀계수^a

실험조건	예측변인	b	β	t	p	R ² change ^b
내집단- 공개FB	경쟁심 ^c	.79	.72	5.77	.000	.57
	과국염려 ^d	-.28	-.32	-2.59	.017	.10
내집단- 익명FB	이기성 ^e	1.20	.74	7.86	.000	.47
	상대탐욕 ^f	-.84	-.36	-2.59	.017	.13
외집단- 공개FB	이기성	1.77	.67	4.60	.000	.44
	과국염려	-.73	-.34	-2.35	.029	.12
외집단- 익명FB	이기성	1.13	.51	3.18	.000	.49
	과국염려	-.71	-.46	-3.84	.001	.15
	경쟁심	.69	.44	2.72	.013	.10

- 통계치는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나온 결과이며 분석단위는 개인이었다.
- 회귀분석에서 각 예측 변인의 고유 설명 변량.
- 타구성원보다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해야겠다는 욕구
- 처벌선에 봉착하게 될 것에 대한 염려 정도
- 자신의 수확량 극대화 욕구.
- 타구성원들의 탐욕성의 정도에 대한 지각

에 대한 하나의 설명 가설로서 각 개인의 수확량이 공개되었을 때 내집단 구성원간에 경쟁심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내집단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을 신뢰했는데 생각보다 상대방이 많이 수확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경쟁적으로 수확량을 증가시키다 보니 익명 조건에 비해 수확량이 더 많게 나왔을 수 있다. 이 가설에 대한 한 가지 지지 증거로서 표 3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내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피드백이 공개적으로 제공되었을 때 경쟁심이 수확행동의 가장 주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내집단원 경쟁 가설은 추후 연구에서 좀 더 검토해 볼 연구 문제라고 하겠다.

사회딜레마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에서 피드백의 익명성 효과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공공재화 실험 패러다임에서는 익명성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rewer & Kramer, 1986; Sniezek 등, 1990). 그러나 자원딜레마 패러다임에서는 이 익명성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Brewer & Kramer, 1986; 남기덕, 1995). 그러나 자원딜레마 패러다임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의 효과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내집단원 조건에서는 익명성의 효과가 기대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외집단원 조건에서는 익명성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인상관리 효과를 부각시키게 만드는 조건이 존재하면 자원딜레마 상황에서 익명성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내외집단에 따른 구성원들간의 동조압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내의 4명의 구성원들의 수확량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보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피드백이 공개적으로 주어질 때 구성원들간의 수확량에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러한 결과는 내집단원들간에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이 공개될 때 동조압력이 커짐으로써 수확량을 서로 비슷하게 맞추어 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표 3에 나

타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보듯이 구성원들이 서로 상대방보다 더 적게 수확할 수 없다는 식의 내집단원 간 경쟁심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내집단원 경쟁 가설은 추후에 좀더 본격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표 4. 각 실험 조건별 4인 집단의 수확량들의 표준편차^{a)}

내집단원 집단		외집단원 집단	
공개FB	익명FB	공개FB	익명FB
1.76	3.21	2.56	2.63
(.70)	(2.61)	(1.51)	(1.02)

a) 괄호 속의 수치는 종속 측정치의 표준편차

내집단원 조건에서 피드백이 익명으로 제공되었을 때 구성원들간의 수확량의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떤 구성원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구성원은 집단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일종의 '희생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집단원 조건에서 피드백이 익명적으로 제공되었을 때 각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드백 익명성 변인의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피험자의 수확행동을 성격변인과 연결시켜 분석해보면 사회딜레마 상황에서 희생적인 사람 또는 이기적인 사람 등의 개인차 요인을 밝히는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남기덕 (1995). 자원딜레마에서 불확실성, 처벌부과 및 식별가능성이 수확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2), 85-98.
- 변상원 · 한덕용 (1998). 사회적 궁지의 해결에서 자기범주화, 결정적 기여도 및 협동기대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2(1), 95-115.
- 최상진 ·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6) 이 종속 측정치(4인의 수확량의 표준편차)의 변량들에 대한 동질성의 가정을 검증해본 결과 변량들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종속 측정치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하지 않았다.

- Bixenstein, V. E., Levitt, C. A. & Wilson, K. V. (1966). Collaboration among six persons in a prisoner's dilemma gam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0, 488-496.
- Brewer, M. B. & Kramer, R. M. (1986). Choice behavior in social dilemmas: Effects of social identity, group size and decision fra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43-549.
- Cha, J. H., & Nam, K. D. (1985). A test of Kelley's cube theory of attribution: A cross-cultural replication of McArthur's study.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12, 151-180.
- Diener, F. (1977). Deindividuation: Causes and consequenc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5, 143-155.
- Diener, F., Fraser, S. C., Bearman, A. L. & Kelem, Z. R. T. (1976). Effects of deindividuation variables on stealing among Halloween trick-or-trea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178-183.
- Fox, J. & Guyer, M. (1966). "Public" choice and cooperation in n-person prisoner's dilemm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2, 469-481.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 Komorita, S. S. & Lapworth, C. W. (1983). Cooperative choice among individuals versus groups in an N-person dilemma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487-496.
- Komorita, S. S., Sweeney, J. & Kravitz, D. A. (1980). Cooperative choice among in the n-person dilemma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504-516.
- Levine, J. M. & Moreland, R. L. (1990). Progress in small group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585-634
- Messick, D. M., Wilke, H., Brewer, M. B., Kramer, R. M., Zemke, P. E. & Lui, L. (1983). Individual adaptation and structural change as solutions to social dilemm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294-309.
- Rapoport, A. & Eshed-Levy, D. (1989). Provision of step-level public good: Effects of greed and fear of being gyped.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4, 325-344.
- Rutte, C. G., Wilke, H. A. M. & Messick, D. M. (1987a). The effects of framing social dilemmas as give-some or take-some gam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 103-108.
- Samuelson, C. D. & Messick, D. M. (1986a). Alternative structural solutions to resource dilemma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7, 139-155.
- Samuelson, C. D. & Messick, D. M. (1986b). Inequities in access to and use of shared resources in social dilemm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960-967.
- Samuelson, C. D. & Messick, D. M., Rutte, C. G. & Wilke, H. (1984). Individual and structural solutions to resource dilemmas in two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94-104.
- Simons, R. T., Dawes, R. M. & Orbell, J. M. (1983). *An experimental comparison of the two motives for not contributing to a public good: Desire to free ride and fear of being gyped*.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Oregon.
- Snizek, J. A., May, D. R. & Sawyer, J. E. (1990). Social uncertainty and interdependence: A study of resource allocation decisions in group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6, 155-180.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Zimbardo, P. G. (1970). The human choice: Individua-

tion, reason and order versus deindividuation, impulse and chaos. In N. J. Arnold and D. Levine,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69*, (pp. 237-307).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The Effects of Impression Management Motive on Harvesting Behavior in a Resource Dilemma

Kidok Nam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Military Academy

A resource dilemma, a special case of a social dilemma, simulates a situation in which a group of individuals can “harvest” resources from a common resource pool. But if they overharvest from the common pool, the pool can become “extinct”. Thus, each member’s decision must consider the future level of the pool as well as the current level. The effects of impression management were investigated in a resource dilemma situation. Groups of four subjects (undergraduate students) were asked to harvest points from a replenishable resource pool. Two factors were crossed in a factorial design: group membership (ingroup vs outgroup membership) and feedback type (individual vs aggregated group level). The primary dependent measure was mean group harvest. Results showed that the two-way interaction effect was significant. Subjects of the groups composed of out-group members harvested more when feedback information was presented in the aggregated group level than when it was presented in the individual level.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cultural psychological perspectives.